

## 현장 포커스

### 업계동향

## 천하제일사료 = 한우고급육, 다 이유 있었네

### ❖ ‘하모니 번식우’ ‘상상플러스 한우’, 생산성·수익성 향상 ‘공신’ 이은주 이사, “농장 경영 효율 딱 맞는 사료” 강조

우리나라 한우 고급육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천하제일사료(사장 윤하운). 천하제일사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우 고급육이다. 천하제일사료 = 한우 고급육의 등식이 성립할 만큼 고급육의 산역사이다.

이런 천하제일사료이기에 한우 고급육 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시켜 나가고 있어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생산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음으로써 농가에 고스란히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우 고급육 전용사료가 바로 그 것.

그 고급육 전용사료는 ‘하모니 번식우’와 ‘상상플러스 한우’.

‘하모니 번식우’와 ‘상상플러스’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름값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 상상플러스 한우

특히 천하제일사료 한우연구소와 (사)목산한우연구소의 사양시험을 통해 출시한 ‘상상플러스’는 단백질 및 에너지 함량 뿐만 아니라 고소화성 섬유소 함량도 강화하여 육질과 육량등급을 향상시키고, 출하체중도 늘리는 데다 주요 광물질 비율을 조절, 육색 개선 및 노결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이 있다.

육량등급 기준 강화와 한우암소 개량 목표 차이 및 밀소 자질에 따른 급여프로그램을 소형체구(육질중시)와 대형체구(육량중시)로 이원화한 것이 ‘상상플러스’의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서 육질 및 육색 개선을 위해 비타민 A까지 정밀하게 조절한 것.

그런 만큼 ‘상상플러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출하월령 30개월령에 소형체구(육질중시)는 육량 A+B 등급 80% 이상, 출하체중 750kg 이상이며, 대형체구(육량중시)는 1+등급이상 80% 이상, A+B 등급 70% 이상, 출하체중은 800kg 이상이다.



이에 대해 천하제일사료 비육우 PM인 이은주 이사는 “‘상상플러스’는 단백질 및 에너지 함량 강화 및 프로그램 이원화로 최적의 생산비로 최고의 생산성을 올려 농장 경영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하모니 번식우**

‘하모니 번식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사육환경 변화와 개량된 한우암소의 번식 생리에 맞게 최신의 영양이론을 적용하여 설계한 ‘하모니 번식우’ 제품은 한우 번식우 경제수명 연장과 송아지 1년 1산의 목표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시킴으로써 번식우 농장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모니’ 제품은 단백질과 에너지 함량을 강화함은 물론 번식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강화하여 한우 번식우 경제수명 연장과 번식성적을 개선되도록 한데다 양질의 조섬유 함량도 강화해 반추위 발달과 대사성 질병을 예방하도록 한 특징도 있다.

천하제일사료 비육우 PM인 이은주 이사(사진)는 “‘상상플러스’와 ‘하모니’ 제품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적의 생산비로 최고의 생산성 실현으로 농장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감이 넘쳐난다.

정리 : 장문백 (편집위원장)

탐방보도

## 농도원(農道苑) 목장

(대표: 황병익,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 회장)

농도원 목장은 1952년도에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장 중의 하나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미국에서 유학한 ‘강태국’ 목사를 비롯해 ‘김용기’, ‘여운혁’ 등 10여 명의 선구자들은 전쟁으로 굶주린 이 땅에 식량자원 확보와 농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를 설립하고 농촌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약 6만 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그 이름을 ‘복음 농도원’이라고 지었다.

이것이 현 농도원 목장의 기원이다. 이 부지 위에 복음농업전수학교(3년제 중학과정)를 설립하였으며 콩, 옥수수, 고구마 등을 재배하며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터득케 하였다. 농도원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전국 농촌 청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가뭄으로 인한 흉작과 과다한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농도원은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설립자들 간에 농촌운동과 기독교 복음 활동의 우선적 가치를 놓고 겪는 갈등이었다.

결국 1965년에 농도원은 폐실되었고 그 때까지 농도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김용기’ 장로는 경기도 하남으로 이주하여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으며, 농업전수학교 교장이었던 ‘유달영’ 박사는 훗날 청와대에 들어가 재건국민운동 본부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용인문화원 원삼면지 (2007), ‘나의 증언’ 강태국 자서전 (1988)



복음농업전수학교,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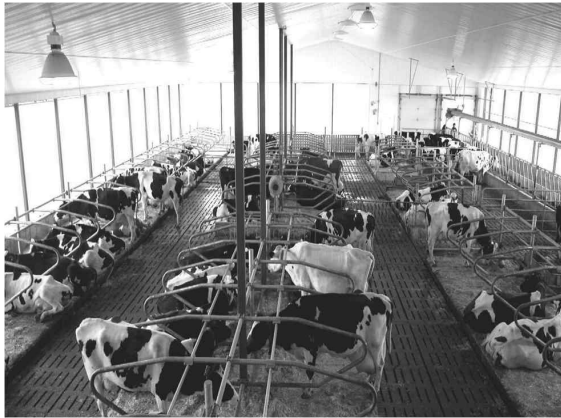


농작물 경작 실습, 1958

농도원이 지금과 같은 낙농목장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73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홀스타인 젖소 20여 두를 도입해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한때 농도원의 젖소 사육두수는 160두 이상으로 불어나, 외형은 대형목장의 형태를 갖췄으나 낮은 생산성과 관리인의 잦은 교체, 낙후된 시설, 자연증부 등으로 인해 한때 목장 경영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90년에 농도원은 후계세대교체를 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후리스톨우사(free stall barns)와 자동사료 급여기, 텐덤착유 시스템 등 낙농시설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목장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90년대 초반 당시 국내 젖소의 두당 산유량이 5천 kg에도 못 미치던 시절에 농도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두당 산유량 9천 kg (305일 기준, 검정성적)을 돌파함으로써 우리 낙농도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평균 30 kg의 우유를 생산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런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는 낙농시설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개체별 사양관리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며 당시 UR협상 등으로 우리 낙농산업이 기로에 선 때, 농도원은 국내 낙농산업의 시설 현대화에 기폭제가 되었다.



후리스톨 우사



자동사료 급여기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농도원의 젖소들이 계속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자 농도원은 생산목장에서 종축개량목장으로 전환 해 BREEDER 목장으로서 종축개량과 한국 낙농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는 농도원 목장이 종축개량 및 사양관리의 개선과 보급을 통해 한국 낙농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농업분야에선 처음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다.



홀스타인품평회 준 챔피언



국내최초 생애산유량 13만8천 kg 생산우

2005년에 농도원 목장은 낙농진흥회의 요청에 의해 우유소비 홍보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낙농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낙농체험이란 목장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에



게 목장을 개방하여 젓 짜기나 송아지 우유 주기, 건초 주기, 치즈 만들기 등 목장의 일상을 체험케 함으로써, 우유와 가까워지게 하고 체험학습을 통해 목장이 갖고 있는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농도원을 방문한 체험객수는 낙농체험을 시작한 2005년 첫째 420명 정도였으나, 2014년 지난해에는 3만 명이 넘는 국내의 체험객이 방문 할 만큼 이제 낙농체험은 우유소비 홍보 뿐 아니라 낙농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6차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낙농체험은 계절별 체험방문객의 편중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속적인 시설투자과 유지관리 등의 애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낙농체험이라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3차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낙농의 본질인 우유 생산과 분뇨처리 등 생산목장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성에서 경쟁력이 없는 목장은 낙농목장이라기 보단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체험 관광목장에 불과하며 그런 목장에서 진실한 낙농체험의 교육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농도원 목장은 지난 10년 동안의 낙농체험을 통해 목장을 찾는 국내의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 농도원이란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목장형 유가공에 관심을 갖고 최근 목장 내에 400m<sup>2</sup> 규모의 유가공 공장을 건축 중이다. 금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가공 공장이 가동되면 농도원 목장은 우유, 요거트, 숙성치즈, 아이스크림 등 4가지 유제품을 자체 원유를 사용해 생산할 계획이다.

1952년에 설립된 농도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과 한국 낙농의 발전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농도원은 이 땅에 부족한 식량 공급을 위해 농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해 콩, 옥수수, 고구마 등 경작농업의 기술 보급, 1973년 낙농목장으로의 전환. 생산목장에서 BREEDER로 낙농체험을 통한 농촌 어메니티(amenity)의 실현, 그리고 목장형 유가공 등 농도원은 발전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농도원(農道苑)은 아직 진화 중이다.



송아지 만지기 체험



농도원 밀크스쿨 전경

정리: 황병익(농도원 목장 대표, 낙농연구회 회장)